



##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 분석

장성옥<sup>1)</sup> · 공은숙<sup>2)</sup> · 김귀분<sup>3)</sup> · 김남초<sup>4)</sup> · 김주희<sup>5)</sup> · 김춘길<sup>6)</sup> · 김희경<sup>7)</sup> · 송미순<sup>8)</sup>  
안수연<sup>6)</sup> · 이경자<sup>9)</sup> · 이영희<sup>10)</sup> · 전시자<sup>11)</sup> · 조남옥<sup>12)</sup> · 조명옥<sup>13)</sup> · 최경숙<sup>14)</sup>

### 서 론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는 생의 주기에서 노년기를 확장시키며, 길어진 수명에 따른 좀더 질적으로 수준 높은 노년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과거보다 활동적인 노년기를 보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Kang, 2003). 따라서 노화는 더 이상 쇠퇴만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발달과 성장의 개념까지도 내포한다는 데 관심을 가지고 노년기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이 형성되고 있다(Rowe & Kahn, 1997).

인생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으로 Erikson은 자아통합감을 들었다(Johnson & Webber, 2001). 또한 Erikson은 자아 통합감의 달성을 생애를 돌아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러한 활동은 노인으로 하여금 삶의 지혜를 갖도록 한다고 제시하였다(Miller, 1999). Erikson이 노년기 빌달과업으로 제시한 자아통합감은 Erickson의 이론이 발표된 이래 노인의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성공적인 노화의 기준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정되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실무에서 노인이 갖도록 해야 하는 바람직한 중재의 방향으로 제시되어왔다(Yoon, 1994; Kim, et al., 1997). 그러나 국외에서는 1970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문헌에서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으로 단지 7편이 검색되었

으며, 그중 1980년대까지의 문헌이 4편이었고, 7편 중 5편은 생의 회고 또는 회상과 자아통합감과의 관계를 기술한 것이었다. 자아통합감은 1960년대 Erikson의 이론에서 소개되었지만,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았으며 1984년 맥아더 재단에 의해 지원된 노화의 긍정적인 면에 대한 다학제적 연구의 결과로 자아통합감과 유사한 용어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창출되었고(Kang, 2003), 이후 성공적 노화의 다면적 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아통합감은 심리학 및 간호학 교과서에서 Erikson이 제시한 사회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둔 발달단계이론에서 노년기 간호 대상자가 갖추도록 해야 하는 노년기 발달과업으로 간호중재목표로 제시되고 있는 반면(Kim, et al., 1997), 관련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않아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연구는 Kim(1989)이 노년의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인 심리적 안녕상태를 자아통합감으로 정의하고 노인들에게 이와 같은 심리적 안녕상태를 가져다주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둔 연구였으며 성공적인 노화상을 노인의 안녕상태로 보고 Chang(1998)이 노인의 안녕을 개념 분석한 연구가 수행된 정도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노년학회를 중심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및 지각 그리고 경험에 대한 연구가 2000년도 들어 수행되고 있으며(Park & Yi, 2002; Kang, 2003; Kim, Shin, Kang, & Kang, 2004). 자아통합감과 성공적인 노화가 같은 개념으로 상호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Hong, 2002), 성공적인 노화는 자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만

#### 주요어 :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분석

- 1)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부교수, 2) 예수간호대학 교수, 3) 경희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4) 가톨릭 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5) 한양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6)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7)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8)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9)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10)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1) 적십자간호대학 교수, 12) 방송통신대학 간호학과 교수
- 13)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14)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4년 2월 18일 심사완료일: 2004년 8월 30일

족하게 하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안녕의 가능성 또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어(Park & Yi, 2002), 생애를 돌아보는 노년기에 각 발달단계에서의 과업과 문제 회고를 통하여 인생에 대해서 충만감을 느끼는 자아통합감 보다는 노년기에 인생전반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측면이 약하다.

그간 간호 교육에서는 노년기에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발달위기를 자아통합감 대 절망으로 보고 자아통합감을 성취하고 절망감으로 이어지는 노인의 자포자기장을 중재할 수 있는 중재기법으로 생의 회고라고 불리는 회상을 제시하여왔다(Song, Ha, Yoo, & Park, 2002). 그러나 간호중재연구로 연결시키는데 필요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간호학적 관점에서의 정의는 아직 연구되어지지 않았고 자아통합감을 노년기 발달과제로 간호 계에서 교육해온 것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으로 노인을 돋기 위한 전략을 위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노인기의 발달과업으로 제시되고 있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정의 구축 및 본질적 측면에 대한 개념분석 작업은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재프로그램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의 간호를 위한 실증적 연구에 수행하는 서술적 연구로 개념분석과정을 거쳐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개념적 정의 및 개념적 특징을 확인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 연구이다.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방법은 추상성이 높고 현장 적용에 모호함을 보이는 개념의 개발을 위해서 이론적 분석 작업과 더불어 현장작업단계에서의 분석 작업을 병행함으로 간호학적 관점에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개발하는 방법이다(Schwartz-Barcott & Kim, 1993). 본 연구에서의 연구 개념인 자아통합감은 간호교육에서는 노년기 간호중재에 목표로 제시되는 개념이지만,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실무에서도 개념의 속성이 규명되지 않아 현장작업을 병행하여 간호학적 관점에서 개념을 명료히 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혼종모형을 통한 개념개발 방법을 선택하였다. 혼종모형을 통한 개념개발 방법은 이론적 단계, 현장작업 단계 그리고 최종분석 단계를 포함하며 이 단계들을 통해 개념이 정련되고, 개발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단계로 문헌고찰을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을 무엇인지, 어떤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관련개념과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 현장단계에서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설명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택하여 이론적 단계에서 나타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특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자아통합을 이루는 인생 경험이 어떠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최종분석 단계에서 이론적 단계의 문헌분석 자료와 현장단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을 정의하였다.

### 이론적 단계

이론적 단계에서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에 관심을 두고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본질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국·영문 사전적 의미를 고찰하였고, 자아통합감을 주제어로 국내 간호·보건관련 분야의 논문에서는 보건의료정보센터([www.richis.org](http://www.richis.org))의 1970년부터 2002년 동안의 학술지 및 학위논문 정보검색기능을 검색하였고 검색한 결과 자아통합감을 주요어로 사용한 논문은 2개의 박사학위논문과 2개의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 검색되었다. 국외에서는 [www.PubMed.com](http://www.PubMed.com)으로 1970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문헌을 자아통합감(ego integrity)으로 검색하였을 때, 단지 7편이 검색되었는데, 그중 3편은 초록조차 검색이 불가능하였고, 나머지 4편도 전문 입수가 불가능하였고 단지 초록내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에서 제시된 논문을 재고찰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간호학 교과서와 노년학 단행본에서의 자아통합감의 의미를 고찰하였는데, 고찰에 활용된 간호학 교과서는 기본간호학 교과서 국문 5종과 영문 2종, 노인 간호학 교과서 국문 3종과 영문 2종, 노인사회학 단행본 3종, 영문 2종, 노인심리학 단행본 2종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동의 정도나 간주관성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 ●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사전적 의미

자아통합은 자아의 하부구조와 기능이 하나의 전체로서 통일된 목표를 성취하는 방향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Encyclopedia of educational terminology, 1994)로 정의되어 있다. 이를 사전에서 자아와 통합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고찰하였을 때 자아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에 대한 의식, 대상의 세계와 구별된 인식으로 행위의 주체이며 체험내용이 변하여도 동일성을 지속하여 작용, 반응, 체험, 사고, 의욕의 작용을 하는 의식의 통일체”(Lee, 1999)이며 “통합은 둘이상의 것을 하나로 모아 다스림(Lee, 1999), 여러 요소들이 조직되어 하나의 전체를 이룸”(Han Gul Academy, 1999)이며, 또한 노인은 늙은이, 늙은신네의 의미(Lee, 1999)로 이를 합성하면 동일성을 유지하는 의식의 통일체로서 자기에 대한 의식의 여러 요소가 조직되어 전체를 이루어 다스려 짐을 의미하

체성이 잘 다스려지는 자기의식에 초점을 둔 의미이다. 영문으로 자아통합감은 Ego-integrity로 Ego는 “the opinion that you have about yourself”이며 Integrity는 “the quality of being honest and of always having high moral principles, formal the state of being united as one complete thing”으로 이를 통합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의견이 완전한 하나의 것으로 융합된 상태로 정직하고 언제나 높은 도덕적 원칙을 갖는 것이다”로 하여 전체성이 강조된 의미이며, 정직과 높은 도덕성과 같은 절제성을 동반한 의미로 볼 수 있다.

#### ● 간호학 교과서 및 노년학 단행본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의미

간호학 교과서 및 노년학 단행본에서 제시되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특성은 인생을 하나의 주기로 보고, 자아통합감을 노년기에 성취할 과업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따라서 노년기에 자아통합을 이룬 경우 인생에 대한 충만감을 느끼게 되고, 죽음을 기꺼이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Kim, et al., 1997), 또한 노년기 자아통합감의 성취가 생의 회고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그 결과 노인은 지혜를 갖게 되고(Miller, 1999), 자신의 부모가 늙어가고 죽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책임을 실감하며 후세를 위한 삶의 지도와 배려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Kim, et al., 1997). 노인의 자아통합감이란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에 순응하면서 이전의 노인이 되기까지의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쳐 온 것이 자아통합감을 성취하는 데 중요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자아통합감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존재가 후손이나 창조적 업적을 통해 계속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초연하며 인간생존에 의미를 부여한 모든 삶의 양식이 상대적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체적,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삶의 양식을 수호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고 있어(Erikson, Erikson, & Kivnick, 1986),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노인이 갖고 있는 상황적 특성이라기보다는 노인이 인생이라는 주기를 종합하면서 노인으로써의 자아를 확립하면서 갖게 되는 것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삶의 양식의 확인 그리고 자신과 선대와 후세와의 연결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자아통합을 이룬 노인의 특성으로 긍정적 태도와 수용, 성숙,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노년에의 적응, 생을 정리하는 태도가 특성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지나온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고 정리하면서 그동안 이룩한 일에 대해 “이만하면 내 인생은 만족스럽다”하고 겸허하지만 확고하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받아들이는 노인의 주관적인 수용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Choi, 1994). 여기에는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에 행운에 감사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인 태도로 전환해서 생각하는 지혜로운 포기를 포함한다고 정의되고 있어(Yoon, 1994; Erikson, et al., 1986),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노인의 신체적 상태 그리고 노인이 이루어온 경제적 상태 그리고 사회적 지위보다는 노인이 평가하는 지나온 생애의 수용 그리고 자신의 삶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의미 있는 일생이었다는 자기 평가가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주요요인이 됨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년기 자아통합감은 한 개인이 노년기로 접어들게 됨에 따라 습득하도록 사회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로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생활에 만족하며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상태로서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반영하는 보다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다(Erikson, et al., 1986).

#### ● 연구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의미

간호학에서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국내 연구는 학위논문 1980년대 2편 1990년대 2편이지만 1980년대 두 편은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 사실상 동일한 논문으로 3편이 자아통합감을 주제로 한 연구이다. 이 세편의 연구는 모두 관계연구로 자아통합감과 건강상태, 사회적지지 그리고 사회적 활동과의 관계에 대한 서술적 연구이며 가장 먼저 이루어진 연구는 Kim(1989)의 연구로 Kim은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가 되는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자아통합감의 달성을 보고 자아통합감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사회적 활동과의 관계를 제시하였는데, 자아통합감 측정도구 개발 시 구체적 개념적 기틀을 기술하지 않았으나 노인의 심리적 안녕상태를 제시하는 문헌고찰을 기틀로 자아통합감을 구성하는 6개영역 즉 현재 생활에 대한 만족, 지나온 일생에 대한 수용, 긍정적인 자아상, 삶의 존엄성과 가치의 확신, 지혜로운 삶, 죽음에 대한 수용의 문항을 구성하였다고 제시하여 자아통합감이 현재생활, 죽음, 지나온 일생을 포함하는 일생의 주기를 배경으로 함을 전제하였다.

Bae(1993)도 한 개인이 노년기를 접어들면서 사회로부터 요구되어지는 기술과 능력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의 결과로서 궁극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녕상태(psychological wellbeing)로 자아통합감을 기술하고 있다.

연구에서 자아통합감에 영향 미치는 변인으로 노인의 사회적 활동정도, 건강상태, 경제수준이 제시되어(Kim, 1989), 노인의 사회활동을 증진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게 해주며 경제적 안정을 돋는 방안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외국에서 검색된 7편의 연구 중 전문입수는 불가능하였고 초록이 검색 가능한 4편의 연구 분석에서는 자아통합감을

생의회고 정신적 안녕 그리고 죽음에 대한 불안수준과 함께 비교한 연구로 회상을 많이 할수록 자아통합감이 높고, 정신적 안녕이 높고 불안수준이 낮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여 자아통합감이 일생을 통해서 형성되는 개념임을 제시하고 있었다.

#### ● 노인의 자아 통합감 관련개념

Kim(1989)은 자아통합감은 성공적인 노화의 척도로 제시하고 있으며 Hong(2002)은 성공적 노화를 자아통합감으로 정의하고 있어 연구에서는 성공적 노화를 유사개념내지는 동일개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자아통합감은 Erikson이 인생주기에서 노년기 발달과업으로 1960년대 자신의 이론에서 제시한 개념이며 성공적 노화는 1984년도에 맥아더 재단이 지원한 다학제적 연구에서 창출된 개념으로(Kang, 2003), 국내에서는 삶의 질, 생활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정확한 개념적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Kang, 2003). 또한 성공적 노화는 각기 다른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그 개념이 달라지며, 문화적 가치에 따라 달리 결정한다고 제시되어 문화적 요소가 개념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고, 주로 성공적 노화의 측면과 요소에 대한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는 신체적, 심리적, 건강상태, 사회적 활동과 경제상태, 사회적지지, 가족 지지가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신체적 건강상태와 심리적 건강상태는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며(Rowe & Kahn, 1987; Rowe & Kahn, 1997), 이는 질병과 장애가 없으면 정신적 기능유지가 쉽고, 정신적 신체적 기능유지는 적극적인 인생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제시하고 있어(Rowe & Kahn, 1997), 성공적 노화가 인생주기를 통한 노인의 주관적 평가보다도, 노년기 사회적 적응력에 더욱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아통합감은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지 않는 인생주기를 통한 성숙함을 강조한 반면 성공적인 노화는 신체적 건강을 강조하고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여 노인기의 질적인 삶 측면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는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 위험과 불구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최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성을 최대화하는 것이라고(Crowther, Parker, Achenbaum, Larimore, & Koenig, 2002)라고 하고 있어 성공적인 노화 역시 다면적 요인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포괄적 개념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자아통합감에 유사 개념으로 노인의 만족감이 제시되고 있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건강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노인의 만족감 정도가 높아진다(Won, 1995)고 하여 노인의 행복감을 갖는 외부적 조건이 강조되고 있었다. 또한 Chang(1998)은 한국노인의 안녕 척도를 개발하면서 노인의 안녕의 경험적 준거를 건강상태, 행

복, 만족, 자기효능, 자기존중, 지지적 대인관계, 경제상태, 믿음, 공간 및 편의시설로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하여보면 자아통합감과 유사개념으로서의 성공적인 노화, 생활만족, 안녕감의 개념과의 관계는 자아통합감은 노인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주관적 평가가 강조되어 자아통합감은 성공적인 노화에 선행되는 필요적 요인이 되며 사회적 적응이 강조된 성공적 노화의 결과로 노인의 만족 및 안녕감이 이루어지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전적 의미와 문헌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내용된 의미를 분석하면 융합된 전체성을 갖는 자기인식으로 높은 도덕성을 내포하며 긍정적 태도로 생을 수용하고 성숙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노년기에 적응하는 상태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크게 간호학 및 노년기를 다룬 문헌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사용되는 의미를 분석한 결과 인생주기를 포함한 조화로운 통합의 의미, 사회 심리적으로 성공적인 적응의 의미, 살아온 생과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심리적 안녕의 의미로 분류할 수 있었다.

#### ● 이론적 단계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 차원, 지표 및 잠정적 정의

개념의 속성은 개념의 의미, 질 그리고 특성으로 개념의 속성을 종합하면 개념의 정의가 된다. 속성은 곁으로 관찰가능한 면과 관찰이 가능하지 않는 면이 있는데, 외적으로 관찰 가능한 특성을 지표라고 하고, 지표는 도구를 개발할 때 개념이 드러나 표현될 수 있는 지표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속성을 분석했을 때 속성을 구분할 수 있는 구분을 차원이라고 볼 수 있다(Kim, H. S. personal communication, September, 2004).

이상의 문헌적 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 속성은 1) 인생주기의 발달단계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 노년기에 성취할 수 있는 과제이며 2) 노년기의 자아통합감 성취 결과는 (1)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는 것 (2)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간에 조화된 견해를 갖는 것 (3) 일생을 통해 이룩한 일에 대한 감사함을 갖는 것 (4)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녕상태 (5) 상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 속성을 포함하는 초월적 차원과 (6) 자신과 타인이 만족하는 생활방법을 형성했을 때 형성되는 상호 관계적 차원이었다. 또한 인생주기에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과정은 1) 인생 주기를 통한 성숙 2)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녕 3) 사회 심리적 조화로운 적응이었다. 지표는 Kim(1988)이 개발한 31문항의 자아통합감 도구내용을 분석했을 때 1) 지금의 삶에 만족한다 2) 타인과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낀다 3) 살아온 여전에 감사한다 4) 생에 대한 가치감을 느낀다 5) 죽음에 대해 초연하다 6) 살아온 삶을 수용한다로 제시할 수 있었다.

이론적 단계를 통한 잠정적인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정의는

인생주기의 발달단계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 노년기에 성취할 수 있는 과제로 인생주기에서 자아통합감을 이루는 과정은 인생 주기를 통한 성숙,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녕 그리고 사회 심리적 조화로운 적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노년기에 자아통합감을 이룬 결과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견해를 통하여 자신과 타인이 만족하는 생활방법을 형성하며 성공적으로 노년기 과제에 적응하며, 지나온 삶을 수용하고 이룩한 일에 대한 감사하는 자세를 갖으며 생을 정리하고 죽음을 포함한 노년기 상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을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로 정의할 수 있었다.

### 현장작업단계

흔종모형 개념분석의 현장분석에서 이상적 면담을 3-6회으로부터 7-8회의 면담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질적 연구와는 달리, 개념의 이론적 정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3-4인이 개념의 속성을 확인하는 연구대상으로 충분한 숫자로 간주하는 것이며 3-4회의 면담으로 대부분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으나 7-8회의 면담을 수행하는 것은 특이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제시되고 있다(Schwartz-Barcott & Kim, 1993). 본 연구에서는 노인기 자아통합감은 이미 인생주기를 통하여 노인이 경험한 것이고, 자신의 인생경험을 질문에 따라 노인이 잘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면담을 2-4회 수행하였고, 특이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를 3-6인보다 많게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65세에서 76세까지의 노인 11인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적합한 면담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연구자들은 이론적 단계에서 제시된 자아통합감 개념의 속성을 논의하였고, 속성이 주관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연구자들간의 모임을 갖고 그동안 연구자들이 접했던 노인들 중 이론적 단계에서의 노인의 자아통합감 속성을 잘 보여줄 수 있다고 사료되는 대상자들을 논의하여 선정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03년 6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이론적 단계를 참조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도출하기 위해 고안한 질문을 중심으로 면담하여 자료가 수집되었다. 자료수집은 주로 관찰보다는 면담자료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아통합감이 노인이 인생주기를 통합하면서 갖게 되는 주관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이었다. 자료수집기간동안에 노인의 자아통합감 속성의 관찰을 참고하였으나 노인이 자신의 지나온 생활과 현재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 노인이 갖는 태도에 대한 면담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면담장소는 연구자가 노인이 사는 거주지 또는 노인과 연구자가 정한 면담하기에 적절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질문은 고안된 질문을 갖고 있었지만 상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보다 깊은 내용이 도출되도록 면담하였으며 면담을

위한 질문 영역은 '지나온 인생생애를 돌아 볼 때 어떠한 생각과 감회를 갖게 됩니까', '다시 인생을 산다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인생을 정리하면서 어떠한 회한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것이고 그 것을 지금은 어떻게 받아 들이십니까', '지금까지의 인생경험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삶의 철학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의 생활이 어떠한 면에서 만족스럽게 생각 되십니까', '인생을 그런대로 잘 살아왔다면 어떤 면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며, 또 특별히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생을 정리하는 시기가 왔다고 느껴지면 어떤 생각을 하실 것이란 생각이 드십니까'로 구성하여 문헌고찰에서 확인된 속성을 중심으로 면담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 범주 속성 및 지표를 확인하였다. 면담은 1회 면담이 1-2시간으로 하여 개인에 따라 2회에서 4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과정에서 자료관리방법은 Schatzman과 Strauss(1973)가 제안한대로 현장기록 노트의 코드와 이론적 기록에서 주요영역을 찾아내어 표시함으로써 개념의 의미 범주, 속성과 지표를 분석하였다. 현장작업에서 도출된 자아통합감이 일어나는 과정은 세대간의 조화,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 인생 주기를 통한 성숙 그리고 자율성이었다. 현장작업에서의 자아통합을 이룬 결과의 특성은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자신에 대한 신뢰,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성공적인 세대간의 조화, 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경제적으로 자유로움, 주변인과 조화로 확인되었다. 현장작업에서 도출된 자아통합감을 이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차원은 초월적 차원, 상호관계적 차원, 자기의존적 차원이었으며 초월적 차원에는 성공적인 세대간의 조화,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이 속하였고, 상호관계적 차원으로는 주변인과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이, 자기의존적 차원으로는 자신에 대한 신뢰,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속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면의 제약 상 5사례에 대한 것을 본문에서는 속성과 차원을 잘 드러내는 인용구를 중심으로 사례경험을 기술하였다.

#### ● 사례 진술

##### • 사례1

사례1은 68세의 여성으로 직업은 가지지 않았던 가정주부로 경제상태는 상이었고, 배우자는 생존해 있으며 유학 중이거나 회사에 다니는 아들만 셋을 두었고 사회활동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몸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사례1은 지금의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안정된 가정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러한 기반위에서 세상일을 좀더 너그럽게 보는 여유로운 관

점을 형성하고 있었다. 사례 1은 연구자와 면담하면서 자신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고 주변사람과 조화로운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조화로운 삶을 유지하는 데는 자신의 적극성, 그리고 주어진 여건을 수용하고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을 표현하였다.

“그래도 내가 집에서 아이들을 잘 길렀으니까 아주 흥륭하게는 안 되었어도 다 착하게 자기 잊기 쉽지 않고 사니까 그걸로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말야. 평범하고 건강하며 착하게 자연 세 아들을 보면서 내 삶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 만족해 하지 뭐.”(세대간의 조화), (자신에 대한 신뢰), (만족한다)

“이제는 노년답게 인생당면의 지혜와 이해로써 젊은이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조학롭다) “나는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노후대책이 보장되어있다고 믿고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백이야. 그지. 그저 하나님 믿고, 내 마지막 인생을 정리해 나가고 있어.”(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수용한다)

“그래도 복은 있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는 되었는데 그리고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 다 살 수 있고, 휘트니스 센터도 나가고, 젊은 사람들을 어울려서 수영도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것 같아(주변 여건에 대한 감사) (주변인과의 조화). 시기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조둘리지 않으니까 사는 것 걱정 없고(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경제적 자유로움), (여유롭다) 그냥 건강 생각해서 운동도 하고 다른 친구들 만날 때도 걱정 없이 만날 수 있고, 일요일에는 교회도 나가고 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 뭐.”(자율성)

“그리고 나도 직장생활을 하고 싶었는데 그저 일부종사만하고 살 것이 조금 아쉽지 뭐. 내가 직장생활을 했으면 잘했을 텐데 말야.”(자신에 대한 신뢰), (적극적이다)

사례1에서 보여 지는 자아통합감의 지표로는 만족한다, 적극적이다. 감사한다. 수용한다. 여유롭다. 조화를 이룬다로 볼 수 있었다.

## • 사례 2

사례 2는 72세의 여성으로 가정주부로 살아왔고 자녀는 딸들과 아들 둘이 모두 대학교를 졸업하고, 결혼하였으며, 경제 상태는 중의 상 정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사례2는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으로 만족스러운 삶중지도를 갖게 됨에 감사하고 주어진 삶의 여건이 만족스럽고 나름대로 자신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살았고 또한 보답을 받은 삶이었으므로 감사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으며, 사람과의 삶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스려 가면서 살았고 여지까지의 삶이 행복했으니 죽음도 같은 맥락일 것이라는 죽음을 관조할 수 있는 욕심 없는 현재의 삶을 표현

하고 있었다.

“우선 부모를 잘 만났지. 우리 아버님이 탄광소장을 하셨는데 호탕한 성격이라 무난하게 어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서 어려운 고비들을 잘 넘겼던 것 같아.(감사한다) 그리고 배우자를 잘 만났지. 사업을 하면서 망했을 때는 절망감도 있었지만 혀선을 다해 부부가 감싸주며 살아온 것 같아요. 정말 칭찬 받을 만한 삶이었어요. (자신에 대한 신뢰), (적극적이다) 시부모님도 극진히 사랑해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잘 만났어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하는 집이 좀 많아요?”(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수용), (만족한다)

“그렇지만 지내온 인생 어찌할 도리가 있나. 잘 지내온 삶이지.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고 내 맘을 다스리면 살아요.”(수용을 통한 신리적 인정), (욕심을 버린다), (마음을 다스린다)

“첫째로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바쁜 길을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만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하지만 인생은 둥글 둥글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주변인과의 조화). 성격이 너무 모가 나서 독선적이면 자신도 피곤하고, 남도 피곤하게 해요.”(세대간의 조화), (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그때는 그래도 내가 참 행복한 편에 속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라 풍부하지는 않았지만 매달 월급으로 아껴 쓰며, 병 걱정 없이 살았고, 남편의 사랑을 흔뻑 받으면서 살아서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경제적인 면에서도 만족하며 살고 있지. 남편이 죽으면서 집도 남겨주고, 토지금도 연금으로 해놓고 가서 생활에 불편이 없어요(경제적으로 자유로움). 그리고 자식들이 매달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서 아주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요. 꼭 잘 되어서가 아니라 맘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화도 자주해 주어 아주 만족스럽고, 정신적으로 걱정거리를 주지 않아서 아주 만족스러워요.”(세대간의 조화)

“혀선을 통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하곤 해요(자신에 대한 신뢰). 일정시대를 겪었고, 해방을 맞았고, 6.25전쟁을 치루었으며, 배고픈 시절들을 많이 넘어야 했어요. 유즈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거야. 배고픈 설움이 뭔지(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그렇지만 죽지 않고, 학교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자식들 잘 자라주어 잘들 자기들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주변 여건에 대한 감사), (감사한다) 이제는 아주 편안하지. 어려운 시절을 다 겪고 나니까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 좋은 세상을 못보고 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지금 나는 능력이 있는 여성으로 사회생활도 잘 하는 여성이 되어보고 싶어요.”

사례2에서 보여 지는 자아통합감의 지표로는 적극적이다. 감사한다. 수용한다. 욕심을 버린다, 만족한다. 마음을 다스린다로 볼 수 있었다.

### • 사례3

사례3는 76세 여성으로 이전에는 장사 일을 하였고 현재 경제상태는 중 정도이며 자녀는 모두 모두 결혼하였고 현재 막내 아들내외와 손자 2명과 함께 살고 있었고 자녀들 모두 안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주로 절에 나가고 있으며, 수지침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다. 사례3은 어려웠던 젊은 시절을 종교적인 지금의 생활을 통하여 수용하게 되었고, 지금의 자신에 생활에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종교적 배경을 통해서 현세에서의 욕심을 버리는 것을 표현하고 있었다.

“우선 가정적으로 며느리하고 학폭하니까 가장 만족하고, 힘들었던 것은 젊었을 때는 남편이 고생시킨 것이고, 그 다음은 아들이 자기자리 못 찾고 혜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안전치는 않아도 뿌리를 내리고 며느리, 손자들하고 연신히 사는 것을 보면, 그것으로도 행복합니다.”(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감사한다), (만족한다) 그래서 내 인생은 헛되지 않고, 다부지고, 보람 있게 살았다고 생각됩니다.”(세대간의 조화),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찰선을 하면서 욕신, 그런 것 다 버리고 정말 부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부처님 가르친 배우면서 맑게, 깨끗하게 욕신 없이 봉사하며 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찰선도 연신히 하고 있고, 봉사도 연신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고생이고 남편 잘못 막난 것이 아니라 내 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것이 내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서, 나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었고 전생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생의 삶은 균생의 덕을 쌓는데서 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생각으로(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욕신 버리고 봉사하면서 지냅니다”(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수용을 통한 신비적 안정), (욕신을 버린다), (수용한다)

“이제 애들이 다 장성했고, 찰선에 입문하면서 나도 연신히 정진하면 깨우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연신히 절에 다녔습니다. (적극적이다) 가장 어렵다는 정법도 양에서 찰선 공부 하니까 가장 만족하고(자신에 대한 신뢰), 수지침 오랫동안 배워서 나는 물은 내 가족, 이웃까지 보시할 수 있으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주변인과의 조화)(자율성). ”

사례3에서 보여 지는 자아통합감의 지표는 지표로는 적극적이다. 감사한다. 수용한다. 만족한다, 욕심을 버린다로 볼 수 있었다.

### • 사례 4

사례4는 72세 남성으로 농사일을 하고 있었고, 자식은 모두 잘 살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경제상태지각은 중상이었다. 사례4의 경우 아랫세대의 잘됨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삶의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고 부지런한 삶이 또한 보답을 받았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사례 4는 면담 중에 적극적인 자신의 생활신조와 그로인해 보답을 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고, 크게 욕심을 갖지 않는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다. 사례 4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을 언제나 수용함으로 긍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표현하였다.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 애들을 내가 자랑이 아니라 8년째 씩 길러도 병원이라는 것은 모르고 길렀다고, 그만큼 건강하게 커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땅도 좀 사게 된 거고 노력으로서 오늘 날까지 지금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요.”(자신에 대한 신뢰), (적극적이다)

“다른 데로는 지금 조상이 도았던, 하늘이 도았던 큰 저거 없이 건강하게 자라주었고 애들도 우리도 건강했고 잘 먹고 살다.”(주변 여건에 대한 감사), (만족한다)

“아직은 뭐 그렇게 저거 하는 애들은 없어요. 40년어가는 애들이 4명이나 되니까 아무개 집 아드님 소리 듣지, 그 아무개집 새끼들 소리는 안 듣는다구요.”(세대간의 조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 욕심이 한이 없잖아요. 나중에 마지막 순간이 되는 순간까지도 마음을 비우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야나, (수용한다) 그것밖에 없어요(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욕심을 버려라, 욕신을 버리고 그저 근면 성실하야. 내 노력 들어서 내 저거(힘)보다 양심껏 사는 거죠.”(자율성), (욕심을 버린다) “이렇게 살이았고 그러다 보니까 따르는 게 많고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주위 분들이 나를 이렇게 잘 해 주는 것도 (주변인과의 조화)내 생활신조가 그거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내가 스물네 살을 먹던 해 군대를 제대해서 근면 성실하게 해다 보니까 땅도 좀 사고, 그러나 우리가 이 나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과분한 생활을 합니다(경제적 자유로움). 그게 개개인이 잘해서도 좋은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론 또 이렇게 운대가 좋아 가지고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수용을 통한 신비적 안정),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감사한다)

“평하게 사는 것, 삶에 보람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 가지고 연신히 그래 지금도 옛날보다는 뭐야 먹고 사는데 구애가 없고 사는 취미는 젊었을 때 동분서주해서 그냥 살이고 들어고 막 뛰어 땅기면서 농사도 짓고 소도 기르고 누에도 치고 그때는 복잡하지만 그게 지금도 그때가 사실 건강해서 그랬던가 하여튼 좋았구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 그 편한 것 같은 좋지가 않다고 생각해요.”(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사례4에서 보여 지는 자아통합감의 지표는 지표로는 적극적이다. 감사한다. 수용한다. 만족한다, 욕심을 버린다로 볼 수 있었다.

### • 사례5

사례5은 65세 남성으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였으며 경제 상태는 중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현재는 부인과 미혼인 아들 2명과 함께 살고 있었다.

사례 5는 회한은 있으나 이만 하면하는 욕심을 버리는 생활과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보이고 있었고 자신의 생의 정리과정을 통한 이루지 못한 소망과 과업에 대한 해결은 이제는 절혀들 수 있는 생의 회한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례5는 그동안 삶을 통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살아온 지나온 생에 대한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여 정의함으로 인생을 관조하는 삶의 여유를 보여주고 있었다.

“현 시점에서는 그런대로 만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직 건강하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고 (주변 여건에 감사), (만족한다) (감사한다).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아이들도 제 몫을 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치고의 직위까지 올라보기도 했고”(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경제적 자유로움), (세대간의 조화)

“나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욕심이 너무 많은가요? 지금은 물론 이런 생각들..다 접었고 (주변인과의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수용한다)... 그래도 내 인생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이제는 도사가 된 것 같습니다. 못 이룬 일도 많지만... 현실에 만족합니다...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나 명예나 권세가 부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욕심을 버린다) 이제 할 일이 없으면.. 교회에 나가보고 싶고.. 젊어 할 때 성당에 나갔었는데... 그사이 좀 쉬었습니다(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이제 때가 되면 다시 가야겠고... 학도 네 풀은 없고.. 맨히 나에게만 해롭고... 상대방을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주변인과의 조화), (조학롭다)

“지금까지의 인생경험이 자신에게 가져다 준 삶의 철학은 모든 것을 영식히 해야 하고... 무슨 일이든 시기적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 기회는 두 번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냉에게 아쉬운 소리 해서도 안 되고... 의지하려고 해도 안 되고 해를 끼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이다) 평소 이렇게 살아왔더니 .. 그래도 비교적 좋다는 소리 듣고 살아왔습니다.”(인생주기를 통한 성숙), (자율성)

사례5에서 보여 지는 자아통합감의 지표는 지표로는 적극적이다. 수용한다. 만족한다, 감사한다, 욕심을 버린다. 조화롭다로 볼 수 있었다.

각 사례별로 나타난 차원과 지표 및 속성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 최종분석 단계

<Table 1> Attributes of ego-integrity in each case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Case6	Case7	Case8	Case9	Case10	Case11
processes of establishing ego-integrity	harmon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	++	++	+++	+	++	++	+++	+	++	++
	psychological serenity through acceptance	+	++	+++	++	++	+++	+++	+	+++	++	+
	psycho-social successful adjustment	+	+	++	+++	+++	++	++	++	++	+++	+++
	maturity through life cycle	+	+	+++	++	+++	++	+++	++	++	++	++
	autonomy	+	+	++	+++	+++	+	+++	+	+	+	+++
attributes and dimensions of the consequence of achieving ego-integrity	transcendence	peaceful acceptance of death	++	++	+++	+	+	+	++	++	·	+++
	balanced perspectives on the past and the future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his/her life	++	++	+++	+	++	+	+++	++	++	+++	+
	gratitude for given conditions	+	++	++	+++	+	+++	++	+++	++	++	+
	self-reliance	trust for self	++	++	++	+++	++	+	+++	+	+	+++
	free from economic limitation	+++	++	+	++	++	++	++	+++	+	++	+++
interpersonal relationship	establishment harmonious relation with others	+++	+	-	++	+	+++	++	++	++	+++	+
	positive acceptance through comparison with others	+++	++	-	+++	++	+++	++	+++	++	++	+
indicators	appreciate	+	++	++	+++	+	+	+++	+++	++	+++	++
	accept	+	+	++	++	+++	+++	++	+	+++	++	+
	regulate one's desire	+	+	+	+++	++	++	+++	+++	+++	+	+
	satisfy	++	++	++	+++	++	+++	+	++	+	+++	++
	be in harmony	++	++	++	++	+	++	++	++	++	+++	+
	take up the positive attitude	+++	+++	+++	+++	+++	+	++	++	++	++	+++

+: Moderate, ++: Very ,+++: Extremely

최종분석 단계에서는 연구자 간의 모임을 통한 논의과정을 통해 문헌분석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을 규명하였으며,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을 재정의 하였으며 간호학에 적용 가능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의미에 초점을 두어 유형을 식별하였으며 차원을 도출하였다.

#### ●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차원, 속성 및 지표

흔종모형에서의 개념분석이 개념의 의미와 측정에 둔다고 함을 고려하여 이론적 단계와 현장작업단계의 분석에 근거해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을 도출하였다.

문헌분석에서 확인된 과정과 자아통합감을 이룬 결과차원은 현장작업을 통하여 내용적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다. 최종분석에서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1) 세대간의 조화 2) 사회·심리적으로 성공적인 적응 3) 수용을 통한 심리적 안정 4) 자율성 5) 인생주기를 통한 성숙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과정은 이론적 단계에서 도출된 3개의 과정이 현장작업 단계에서도 확인되었으므로 그대로 3개의 과정을 선택하고 이론적 단계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작업단계에서 도출된 자신과 아랫세대간의 만족스런 관계인 세대간의 조화, 자신의 의지와 판단으로 자신의 생활을 주도하는 자율성과정이 추가된 것이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이룬 결과의 속성과 차원 그리고 지표에 해당하는 것을 문헌분석 결과와 현장조사를 대조하면서 재분석하였다. 이론적 단계에서 확인된 속성 및 지표는 현장조사에서 대부분 수용되었고, 좀더 구체화된 속성으로 드러났으며 현장작업에서의 속성이 수용되었는데, 현장작업 단계에서 강조된 성공적인 세대간의 조화는 자아통합감이 일어나는 과정으로 정리되었다. 최종분석에서 선택된 차원과 속성은 현장작업단계에서의 자기의존적 차원이 추가되어 초월적, 상호관계적, 자기의존적 차원으로 정리되었다. 차원별 속성은 초월적 차원으로 1) 과거와 미래간의 조화로운 생의 관점 2)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 3) 편안하게 수용되는 죽음 상호관계적 차원으로는 4) 비교를 통한 긍정적 수용 5) 주변인과의 조화 그리고 자기의존적 차원으로는 6) 자신에 대한 신뢰 7)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도출하였다.

최종분석에서 도출된 지표는 1) 감사한다 2) 수용한다 3) 욕심을 버린다 4) 만족한다 5) 조화롭다 6) 적극적이다로 도출되었는데, 이는 이론적 단계의 6개의 지표 중 생에 대한 가치감을 느낀다를 감사한다와 만족한다와 같은 지표라고 사료되어 삭제하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감을 느낀다를 현장작업단계에서의 조화롭다로 통합하여 선택하였으며, 또한 현장작업단계에서 대상자들에게서 강조된 욕심을 버린다와 적극적이다를 최종분석에서 추가로 선택하였다.

#### ● 노인의 자아통합감유형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유형은 자아통합감을 강하게 느끼게 지각하게 되는 주된 이유로 분류했을 때 개인적인 운, 주관적 재해석,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대견스러움으로 크게 구분이 되었고, 이를 통한 대상자의 경험에서 세 가지 유형으로 부각되었다.

유형 I은 자신의 만족스러운 오늘날이 있게 되기까지 개인적인 운이 크게 작용했음을 인정하는 유형이었고 특히 여성의 경우였으며 좋은 아버지 만나고,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자식을 둔 삶종지도가 잘 이행되었고, 그 결과 자신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했지만 지금의 만족스런 노년이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유형으로 사례 1, 사례 2의 상황에서 잘 나타나고 있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느낌이 들어요. 남들보다 사망도 많이 받고, 건강하게 잘 살다 간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빨리 저 세상에 있는 남편을 보고 싶어요.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식들은 그동안 어머에게 잘했으니 서운한 것 없고, 나도 그동안 대접 잘 받았으니 서운 할 것 없고요.”

유형 II는 유형 I과 같이 좋은 부모, 좋은 남편, 훌륭한 자식을 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노년의 의미를 다시금 만족스러운 것으로 정립하는 유형이었다. 사례 3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례 3은 종교라는 틀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재정립한 경우로 재해석된 인생, 재정립된 삶의 가치 속에서 열심히 사는 자신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젊어서는 남편 잘못 만나서 이 고생이라는 생각이 나느라 힘들고 초나하게 막들었는데, 절에 다니면서 남편 잘못 만난 것이 아니라 내 업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내 마음을 나 스스로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전생은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서 이렇게 고생했지만, 내생의 삶은 균생의 덕을 쌓는데서 잘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욕심 버리고 봉사하면서 지냅니다.”

유형 III은 남성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유형으로 자신의 열심히 살아온 삶에 대한 대견스러움이 특징적으로 드러났고 더불어서 모든 사람의 노력이 다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닌데, 자신의 노력이 보상받았음에 대해 주변적 여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역시 이 유형의 특징으로 드러나는 속성이었다. 본고에서의 사례기술에서는 사례 4, 5에서 이 유형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

“인생에서 잘 살아왔다고 느낀 부분이나 또는 특별히 감사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건강하게 태어난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전한 정신을 가진 것에도 감사합니다. 인연 맺은 주위의 모든 사람이 나를 도와주었고 나에게 도움 되는 사람들은

맡는 것 같습니다. 인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나이 되는 사람들이 생각하시는 너무 거친한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개개인이 잘해서도 뭉친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운대가 좋아 가지고 잘 해서 잘 먹고 잘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 ●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정의

이론 및 현장작업 단계에서 파악된 속성을 토대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개념을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인생주기의 발달단계 과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서 노년기에 성취할 수 있는 과제이며 노인이 성공적으로 적용한 인생주기를 통해서 사회 심리적으로 성숙된 인격을 갖추고, 자신이 속한 세대간의 조화 속에서 자율적으로 살아온 인생을 수용함으로 심리적 안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자아통합감을 이룬 결과 자신의 생을 재해석함으로 과거와 미래에 대한 조화로운 관점을 갖고, 주변여건에 대한 감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이며 주변인과 조화를 이루고, 경제적으로 제약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주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죽음까지도 편안하게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논 의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에 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심리 정신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개념분석방법을 통하여 그 속성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자아통합감은 인생주기를 통하여 이루어진 바람직한 성향의 결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노년기 가질 수 있는 심리적 안녕상태라면, 인생 주기를 바람직하게 보내지 않은 노인대상자라 할지라도 자아통합감을 성취한 후 갖게 되는 속성을 노인이 가질 수 있도록 중재를 지속해야 함이 노인 간호에서는 전제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연구에서는 잘 통합된 성격이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가장 좋은 지표가 될 것이라고 제시된 바 있다(Yoo, 1987). 즉 노인이 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사고방향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노인 간호 중재는 중요하다.

노년기초월(gerotranscendence)이론은 나이 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데, 모든 노인에게 높은 수준에서의 노인의 초월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의 관점이 바뀌고 현실에 대한 다른 시각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Wadensten & Carlsson, 2001). 본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은 긍정적 수용, 과거사건에 대한 긍정적 재해석, 과 같은 인지적 특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생각의 관점이 바

뀌면 설사 사건이 바뀐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인은 심리적 안녕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노년기 초월이론에서 또한 강조되는 것은 우주적 차원의 변화로 선대와의 교감,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변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아차원의 변화로는 자신중심의 사고에서 이타주의적 사고로 또한 신체에 집착하지 않는 특성,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는 관계의 중요성과 의미가 변화하며 자신에게 주어지는 역할 변화를 인식하여 그동안 고수해왔던 역할을 버리거나 또한 보다 나은 성숙한 삶으로 노년기의 삶을 영위하며 재물에 덜 초점을 두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전체로부터의 생애의 조각그림의 수수께끼조각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Wadensten & Carlsson, 2001)고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이룬 노인은 죽음도 지금까지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는 여유를 갖게 되고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정리, 상실을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함과 자신과 타인이 만족하는 생활방법을 형성하는 것이 제시되어 진다. 즉 노인의 자아통합감이 인생의 주기를 거의 지나온 다음에 정리하는 관점을 갖게 되는 노년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식의 변화로, 노년기 초월이론적 관점과 그 속성을 같이 함을 알 수 있다. 즉 자아통합감에 인생주기가 모두 관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식의 변화는 특히 노년기에 일어나는 것으로, 노년기에 중재의 여지가 있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개개의 문화는 노화의 경험과 관련하여 그 문화 나름대로 내재하는 특이한 규범적 측면과 이에 따른 행동유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유형은 그 문화에 따라 노화에 대한 규정, 자녀의 부모에 대한 책임, 가족부양에 대한 기대 등과 같은 것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Won, 1995). 특히 자녀로부터 받는 도움은 성별에 따라 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달성을 영향을 주는데, 이는 남성노인보다 여성노인에게 있어서 더욱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Won, 1995). 본 연구결과의 자아통합감의 유형 I은 여성에게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유형으로 좋은 부모, 좋은 남편, 훌륭한 자식에 의한 삶을 행복한 삶으로 여기는 삼종지도의 미덕과 운이 만족스러운 노년의 의미에까지 이어지는 유형이었던 점과 반면에, 나이가 들에 따라 생의 의미와 가치는 재조직되며 노화는 인생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젊은 시절 어려웠던 것들이 재해석되어질 수 있음으로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에 따라 노인은 의미의 원천으로써 생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것으로 보인다(Heikkinnen, 1996)는 측면은 본 연구결과에서 비록 좋은 부모, 좋은 남편, 훌륭한 자식을 둔 것은 아니었지만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인생의 의미를 재해석하여 노년의 의미를 다시금 만족스러운 것으로 정립하는 유형 II의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인 간호에서 같은 여성의

경우라도 서로 다른 만족스런 노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적 이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의 세대간의 조화와 자율성은 현장작업단계 분석의 결과로 최종분석단계에서 선택된 과정이었다. 특히 세대간에 조화는 현장작업단계에서 대상자들이 강조한 부분이었는데, 노인에게 있어서 가족의 의미 특히 자식과의 관계는 자신이 생애를 잘 살아왔는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다. 이는 한국인의 성공적 노후경험을 연구한 Kim 등(2004)의 연구에서 한국노인의 노후 9복 중에 부부 복, 자식 복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한국노인의 건강생활양식을 연구한 Lee(1993)의 연구에서 노인의 건강생활양식은 조상과 자신과 자손과 관계를 연결시키는 맥락에서의 조화로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기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아통합을 위한 간호중재로 가족프로그램 및 세대간의 통합을 이루는 중재가 필요로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자율성은 Park과 Yi(2002)의 성공적 노화의 인식에서도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바 있는데, 자아통합감에서도 중요한 차원으로 노인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데 갖는 자기 결정권과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매우 중요함이 본 연구에서도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 분석에서 성공적 노화와는 자아통합감과는 유사개념으로 노인기의 삶의 질에 초점을 둔 개념이었다. 노인의 자아통합감은 성공적인 노화보다는 노인이 내리는 생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적 측면이 강조된 것으로, 인생주기를 통한 삶을 노인이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개념이었다. 노인 간호 부분에서 노인 간호중재로 추천되는 것은 생의 회고요법이다(Song, et al., 2002). 생의 회고요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가족 앨범과 같은 것이 제안되고 있을 뿐 구체적 방법 역시 아직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다. 간호사가 적극적으로 생의회고요법을 주도할 때, 본 연구에서 제시된 자아통합감의 차원을 중재의 배경으로 하여, 노인이 자신의 삶을 대한 긍정적 재해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생의회고 요법의 효과를 자아통합감의 속성 및 지표를 근거로 사정할 수 있는 기본이 본 연구결과 제시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결 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간호중재에 노인의 자아통합감 성취가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학문에서 간과되어온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대한 이해와 정립을 위해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을 파악하여 정의를 내리기 위해 혼종모형을 이용한 개념개발을 시도한 연구이며 본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자아통합감 개념이 실무에서 적용가능하도록 명료해질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노인의 자아통합감의 속성을 고려한 노인의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후속연구를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자아통합감 중재의 효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노인의 자아통합감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Bae, Y. S. (1993). A study on the social support and ego-integrity perceived by the elderly, *J Korean Acad Ault Nurs*, 5(1), 18-32.
- Chang, H. K. (1998). *The development of well-being scale of the Korean elderly*.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 Choi, J. H. (1994). *Understanding of human behavior*, Seoul: Bummunsa
- Crowther, M.R., Parker, M.W., Achenbaum, W.A., Larimore, W. L., & Koenig, H. G. (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620.
- Encyclopedia of educational terminology (1994). *Encyclopedia of educational terminology*,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Erikson, J. M., & Kivnick, H. Q. (1986). *Vital involvement in old age*, New York: W.W. Norton & Company.
- Ha, K. Y., & Hong, D. A. G. (1999). The relations between friendship network and psychological wellbeing for the elderly, *Korean J Res Gerontol*, 8, 75-90.
- Han Gul Academy (1999). *Great Korean encyclopedia*, Seoul: Eumungak.
- Heikkinen, R. L. (1996). Experienced aging as elucidated by narratives, In J.E. Birren, G.M. Kenyon, J.E. Ruth, J.J.F. Schroots, & T.Svensson (Ed), *Aging and biography: Explorations in adult development*(pp. 187-204),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
- Hong, H. B. (2002). A study on relation between successful aging and religion, *J Korea Gerontol Soc*, 22(3), 245-259.
- Johnson, B. M., & Webber, P. B. (2001).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asoning in nursing*, Philadelphia: Lippincott.
- Kang, I. (2003).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J Welfare for the Aged*, 20(Summer), 95-116.
- Kim, J. S. (1989). *A study of social activities and ego integrity of the ag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Kim, M. H., Shin, K. R., Kang, M. S., & Kang, I. (2004). A study of successful aging experience of Korean Elderly, *J Korea Gerontol Soc*, 24(2), 79-95.
- Kim, M. J., Kim, K. S., Kim, J. I., Park, H. S., Song, K. A. & Choi, S. H. (1997). *Fundamentals of Nursing*, Seoul: Hyunmunsa.
- Lee, H. S. (1999). *Great Korean Encyclopedia*, Seoul: Minjungsuhlim.
- Lee, Y. H. (1993). *Health lifestyle of Korean elder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en's University.
- Lee, Y. R., Kim, S. M., Park, H. O., Park, H. M., Jo, G. H.,

- & Ro, Y. J. (1998). The trend and issues of the gerontological nursing study in Korea, *J Korean Acad Nurs*, 28(3), 676-694.
- Miller, C. A. (1999). *Nursing care of older adults: Theory & practice*, 3rd. ed., Philadelphia. New York. Baltimore: Lippincott.
- Park, K. R., & Yi, T. S. (2002). A study on perceptions of successful aging in later life, *J Korea Gerontol Soc*, 22(3), 53-66.
- Rowe, J. W., & Kahn, R. L. (1987). Human aging: Usual and successful, *Sci*, 237(July), 143-149.
- Rowe, J. W., &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chatzman, L., & Strauss, A. L. (1973). *Field research: Strategies for natural science*.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 Schwartz-Barcott, D., & Kim, H.S.(1993). An expansion and elaboration of the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In B.L., Rodgers & K.A. Knafel (Ed), *Concept development in nursing*,(pp. 107-133), Philadelphia: W.B. Saunders Company.
- Song, M. S., Ha, Y. S., Yoo, S. J., & Park, Y. H. (2002). *Gerontological Nursing*,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Summer, D. (1995). *Longman Dictionary of Contemporary English*, (3rd ed.) Burnt. Mill, Harlow: Longman Group Ltd.
- Yoo, H. J. (1987).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on subjective well-being of the elder:With reference to extraversion and neuroticism, *Korean J Clin Psycho*, 6(1), 1-8.
- Yoon, J. (1994). *Psychology for the adult and the elderly*, Seoul: Joongangjuksung Publishing Co.
- Wadensten, B., & Carlsson, M. (2001). A qualitative study of nursing staff members' interpretations of signs of gerotranscendence, *J Adv Nurs*, 36(5), 635-642.
- Won, Y. H. (1995). Living arrangement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in Korea, *J Korea Gerontol Soc*, 15(2), 97-116.

## The Concept Analysis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Chang, Sung Ok<sup>1)</sup> · Kong, Eun Sook<sup>2)</sup> · Kim, Kwuy Bun<sup>3)</sup> · Kim, Nam Cho<sup>4)</sup> · Kim, Ju Hee<sup>5)</sup>  
 Kim, Chun Gill<sup>6)</sup> · Kim, Hee Kyung<sup>7)</sup> · Song, Mi Soon<sup>8)</sup> · Ahn, Soo Yeon<sup>6)</sup> · Lee, Kyung Ja<sup>9)</sup>  
 Lee, Young Whee<sup>10)</sup> · Chon, Si Ja<sup>11)</sup> · Cho, Nam Ok<sup>12)</sup> · Cho, Myung Ok<sup>13)</sup> · Choi, Kyung Sook<sup>14)</sup>

1) Korea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2) Margaret Pritchard University, 3) Kyung Hee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Science  
 4)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ollege of Nursing, 5) Hanyang University, Nursing Department  
 6) Hallym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7) Kongju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8)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9)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Nursing, 10) Inha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11) Red Cross college of Nursing, 12)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13) Dong-Eui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14) Chung-Ang University, Deparment of Nursing

**Purpose:** Ego-integrity in Erikson's stage theory is used frequently among health team members related to the care of the elderly and has specific meanings within the context of quality of life in later life. However, the concept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has not been well articulated in the litera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clarify and conceptualize the phenomena of ego-integrity in the elderly. **Method:** A Hybrid Model of concept development was applied to develop a concept of ego-integrity, which included a field study carried out in Seoul, South Korea using in-depth interviews with old adults who were admitted as a right person for research subject according to attributes of ego-integrity analysed in the theoretical phase. **Results:** The concept of ego-integrity emerged as a complex phenomenon having meanings in several different dimensions which encompassed several attributes. **Conclusions:** Ego-integrity is a concept having needs that should be treated in a specific way and it is possible to enrich the meaning and methods to manage ego-integrity in nursing interventions for promoting quality of life so that its application may have effects that have positive impacts on the elderly's well being.

Key words : Ego, Integrity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Chang, Sung Ok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Korea University  
 126-1, 5-ka, Anam-dong, Sungbuk-ku, Seoul, Korea  
 Tel: +82-2-3290-4918 Fax: +82-2-927-4676 E-mail: sungok@korea.ac.kr